

# 세계 최정상급 비보이들 전주서 격돌

### 22일 그랑프리 개최... 국내외 30여팀 참가 열전

세계 최정상급 비보이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문화의 도시 전주에서 젊음의 춤판을 벌인다.

국내 최고 비보이들의 한바탕 축제인 제10회 전주비보이그랑프리'가 오는 22일 오후 6시 전북대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린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유명 비보이 크루 30여 팀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오후 1시 비공개 예선전을 시작으로, 오후 6시부터 개최식을 갖고 본격적인 본선 배틀이 시작된다.

본선대회에는 예선을 통과한 8개 팀이 우승상금을 놓고 격돌한다.

이번 대회의 본선대회 수상자에게는 영광의 우승상패와 함께 1등 1000만원, 2등 600만원, 3등 2등 각 300만원 등 총 22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특히 이번 대회는 대회의 위상과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의 라빌(Reveal), 크럼스(Crums), 리스트포원의 조성국(Beat Joe) 등 세계유명 비보이 3명이 심판을 맡아 진행하며, 비보이대회 전문 MC인 우정훈, 박재민이 공동사회를 맡는다. 또한 DJ 전효민이 비보이 및 관객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된다.

세계 최고 비보이들의 격돌 현장을

찾은 관객들을 위한 특별한 공연도 마련된다.

이날 오프닝 공연에는 지난 2005년 세계최고의 비보이 크루를 가리키는 '배틀 오브 더 이어(Battle Of The Year)' 우승으로 대한민국에 비보이 열풍을 일으킨 '라스트포원'이 참여한다. 또한 힙합가수 산이와 가수 제시, 레이저퍼포먼스의 최강타인 PJD가 참가해 전주비보이그랑프리를 찾는 관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밖에 이날 전북대삼성문화회관 야외마당에서는 전주비보이그랑프리 10주년 기념 그라피티가 펼쳐져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본선대회장 입장은 배부처에서 받은 좌석교환권을 행사 당일 오전 11시부터 전북대삼성문화회관 매표소에서 지정좌석권으로 교환, 선착순 1700명만 입장할 수 있다.

경연에 앞서 시는 지난 7일 풍남문광장에서 열린 '10주년 기념 그라피티'를 시작으로 오는 14일 중앙삼거리광장에서 열리는 '3:3비보이 배틀대회', 20일 전주청소년문화의집에서 열리는 '비보이 워크샵', 21일 풍남문광장에서 열리는 '올강르 합합믹스배틀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한다. 비보이 워크샵에는 이번 대회의 심사위원인 Reveal과 Crums이 함께 한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10일 국립세종도서관 벤치마킹에 나섰다.

## 전주시의회 행정위, 세종도서관 벤치마킹 나서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강동화)는 10일 대통령기록관과 국립세종도서관 등 타 기관 우수시설 벤치마킹에 나섰다.

위원회는 이날 행정정책도서관 및 일반도서관 기능을 겸한 국립세종도서관과 역대 대통령이 남긴 문서, 사진, 영상 등을 모아 보존하고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연이어 방문했다.

이날 의원들은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국립세종도서관을 찾아 도서관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고 들은 뒤 프로그램 일부를 전주시 도서관에 도입하기로 하는 등

도서관 활성화 전략 모색에 나섰다.

이어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 수집, 관리체계 시스템, 기록물 서비스 제공현황 등을 둘러보고 기록물 수집·보존·연구 방법 등 기록물 관리 노하우를 전주정신의 숲 설립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에도 논의하였다.

강동화 행정위원장은 "국가기관의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적용 가능토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비교견학을 통해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국내 최고 비보이들의 한바탕 축제인 2016 제10회 전주비보이 그랑프리대회 관련 기자회견이 10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가운데 우승상 복지환경국장과 전주청소년문화의집 정경주 관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골목길 30대 바바리맨 '덜미'

골목길을 지나는 여성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익산경찰서는 10일 골목길을 지나고 있는 여성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벌인 혐의(공연음란)로 김모(30)씨를 불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밤 10시30분께 익산시 신동의 한 골목길에서 행인 A양(19·여)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익산의 한 대기업 생산직 사원으로 확인된 김씨는 이날 골목길에서 음란행위를 벌여 A양 등 3명의 여성으로부터 112에 신고됐다.

/안진수 기자

## 무인빨래방서 여성 속옷 훔쳐

무인빨래방에서 여성 속옷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10일 무인빨래방에서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침입절도)로 주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4월3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한 무인빨래방에서 A(20·여)씨가 세탁기에 넣은 티셔츠와 속옷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총 2회에 걸쳐 빨래방에서 여성 의류 10여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주씨는 여성 고객들이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속옷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주씨는 경찰에서 "여자 옷에 대한 호기심에 갖고 싶어 훔쳤다"고 진술했다.

/안진수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 전주 CCTV통합관제센터, 안전과수꾼 역할 '톡톡'

### 현행범 검거 도와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가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안전과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새벽 중화산동의 한 공원에서 잠들어있던 취객에게 남·여 2명이 접근해 차량키 및 현금을 절취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CCTV통합관제센터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또 지난 8일 새벽에는 주차된 차량 안의 현금을

절취하는 모습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 현행범으로 검거하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현재 전주시는 총 1683대의 CCTV가 설치돼 있으며, 관제요원 18명이 전주시 CCTV 관제센터에서 24시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전주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실종된 치매노인이 길거리에서 비틀거리는 것을 발견해 신고하거나, 공원에서 자살 기도한 청소년을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 귀한 생명을 구하는 등 절도와 폭력,

교통사고, 청소년선도 등 지난해 총 1551건의 범죄예방 및 자료제공 실적을 올렸다. 올해도 현재까지 305건의 범죄예방 및 자료제공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실 관계자는 "CCTV 관제센터 영상자료는 범죄현장의 가장 확실한 목격자로 범인 검거를 위한 결정적 증거자료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며 "CCTV 설치 및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 체감도를 높여주고, 각종 법규위반 행위를 감소시키는 등 안전도시 전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 전주보건소, 방역소독장비 일제점검

### 17일까지 실시

전주시가 감염병의 주요원인이 되는 모기의 박멸을 위한 여름철 방역소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주시보건소는 최근 급격한 기온상승으로 모기유충이 성충으로 변태과정을 거쳐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방역장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방역소독을 위해 현재 전주시보건소 보유하고 있는 초미립자살포기 1대와 휴대용연무기 106대, 분무기 60대, 포충기 308대 등이다.

또한 보건소는 올해 휴대용기열연무기 47대를 구입해 노후화된 동 주민센터의 방역장비를 신품으로 교체하고 현재 관내 116개 공원에 운영중인 308대의 포충기는 오는 10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보건소는 지카바이러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기동반을 편성, 다중이용시설 등 정화소 2500개에 유충구제약품을 투입하는 등 모기 개체수를 줄여나가고 있다.

한편 여름철 모기 방역 신고는 전주시보건소(063-281-6341, 8)로 신고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 간호사 폭행 후 병원 불지른 40대 징역형

병원에서 흡연을 말리는 간호사를 폭행하고 병원 건물에 불을 지른 4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10일 흡연을 제지한 간호사를 폭행하고 병원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상 등)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 14일 오전 2시30분께 전주시 한 병원에서 당직 간호사인 A(50·여)씨가 흡연을 제지하자 A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전치 4주의 상

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환자와 보호자 등이 있는 병원에 불을 질러 3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입원 중인 피고인이 간호사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피해자를 가하고, 병원에 불을 질러 당시 병원에 입원 중인 다수의 환자들이 탈출하는 과정에서 연기를 마셔 응급실 치료를 받게한 점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박용주 기자

## 한분 한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생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중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들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